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0.9.25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##### ○ EU, 헤즈볼라의 '군사조직'만 제재 입장 고수

- 9.16 「보렐」 EU 외교정책국장은 헤즈볼라 전체를 테러조직으로 지정 하라는 일부 유럽국가의 요구에 대해 “헤즈볼라의 ‘정치적’ 부분과 ‘군사적’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, 모든 정당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레바논과 중동의 안정을 위한 열쇠”라고 언급

##### ○ 노르웨이, '2011 노르웨이 테러\*' 범인 가석방 신청

- 9.17 AFP통신은 '11년 테러 사건으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「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」가 가석방 신청 최소 복역기간 (10년)이 도래해 가석방을 신청했으며,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되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

\* '11.7.22 오슬로 정부청사 인근에서 폭탄 공격(사망 7명, 부상 209명), 곧이어 우퇴비아섬의 노동당 청소년캠프 행사장에서 총기 난사(사망 69명, 부상 110명)

#### 미주

##### ○ 美 대테러센터, ISIS 세력확대 및 테러위험성 경고

- 9.17 「크리스토퍼 밀러」美 대테러센터(NCTC) 소장은 국토안보위 청문회에서 ISIS가 헌신도 높은 중간급 사령관과 비밀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, 20여개의 지부를 통해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대한 공격을 꾀하고 있다고 경고

##### ○ 美, 「트럼프」 대통령에게 독극물 소포 보낸 용의자 체포

- 9.21 CNN은 「트럼프」 대통령에게 생화학 테러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 '리신\*'을 보낸(9.19) 용의자(女)가 총기를 소지한 채 캐나다에서 뉴욕주로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다고 보도

\* 0.001g만 흡입해도 구역질·구토·출혈 및 장기부전으로 36~72시간 이내 사망

## 중 동

### ○ 바레인, 이란 추종 무장세력의 자국공격 계획 저지

- 9.21 바레인 군경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「카셈 솔레이마니」 살해('20.1)에 대한 보복으로 외교관 및 외국인을 겨냥한 폭발물을 제거하고, 테러를 계획한 무장세력 9명을 체포하였다고 발표

\* 바레인 당국은 배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다고 주장

## 아 · 태평양

### ○ 인도, 헌법 370조\* 폐지 후 잠무-카슈미르 지역 테러 감소

- 9.16 인도 정부는 헌법 370조가 폐지된 '19. 8. 5~'20. 9. 9(402일) 동안 잠무-카슈미르 지역에서 총 211건의 테러가 발생해 '18. 6. 29~'19. 8. 4(402일 455건)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라고 발표

\* 1951년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인 잠무-카슈미르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한 법안

### ○ 파키스탄, 테러 용의자 미국 송환 중단

- 9.21 파키스탄 대법원은 ISIS와 연계하여 타임스퀘어 테러를 계획한 용의자 3명 중 1명으로 추정되는 자국민 「하룬」에 대해서 미국 송환을 중단한다고 발표

\* 판사는 '파키스탄은 주권국가이며 법에 따라 시민을 보호할 것'이라고 언급

## 아프리카

### ○ ISIS, 니제르 구호단체 테러\* 배후 자처

- 9.18 ISIS는 온라인 선전매체 '알나바'를 통해 지난 8월 니제르에서 발생한 구호단체 테러의 배후가 ISIS-西아프리카지부(ISWAP)이며, 同 테러가 프랑스의 사헬 지역 대테러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

\* 8.9 국제구호단체 「Acted」 소속 프랑스인 6명이 현지 가이드 2명과 함께 니제르 일 쿠레 국립공원 인근에서 무장괴한의 공격으로 피살

파키스탄, 메리어트 호텔 차량폭탄테러

- '08. 9. 20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소재 메리어트 호텔 자살폭탄 테러로 외국인 관광객 포함, 60여명이 사망하고 80여명 부상
  - 테러범은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호텔로 진입하다 경비원과 차단기에 막히자 그 자리에서 자폭
    - \* 경찰은 트럭에 600kg 상당의 포탄과 폭약이 실려 있었다고 발표
  - 자폭으로 인한 대형폭발로 호텔 연회장이 무너지고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, 트럭이 있던 도로도 심하게 파손
- 대다수 언론은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된 「페미다 미르자」 국회의장 주재 ‘이프타르’ 참석자를 노린 테러라고 보도
  - \* 일부 언론은 테러범이 파키스탄 정계와 군부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의회를 공격하려 했으나 의회 접근 실패로 메리어트 호텔을 선택했다고 보도
- 그러나, 파키스탄 정부는 며칠 뒤 친미 성향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발표하고, 미국의 협조下 알카에다 소탕작전을 전개

————— < 이프타르(iftar) > —————

- 라마단 기간 中 낮 시간의 금식을 마치고 일몰 직후에 하는 식사로, 바로 정식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, 물과 함께 대추야자 등 간단한 음식만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린 후 본격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
- 이프타르에서 먹는 음식은 지역마다 다른데 아라비아반도에서는 견과류나 우유 등으로 만든 간소한 음식 ‘라마다니아(ramadaniyah)’를, 북아프리카에서는 육류와 채소를 넣어 만든 수프의 일종인 ‘하리라(harira)’를, 이란에서는 우유와 쌀을 이용한 수프를 취식
- 이프타르는 가족·친지·이웃 등과 함께하므로 가족 및 친지간의 방문이 활발해져 결속이 돈독해지고,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프타르를 제공함으로써 약자를 배려하는 라마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음